

광주 광산구,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 추진



다회용 식기·세척기 등 빈소당 최대 625만 원 지원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내달 중 최종 선정 계획

광주 광산구가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취지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체계로 전환을 희망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정부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전

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접시, 플라스틱 컵만 연간 수억, 수십억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커피숍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추진해 온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장례식장 업체와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다회용 식기, 식기세척기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반영,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총 16개 빈소(1개 빈소당 최대 625만 원 지원)의 다회

용 식기, 식기세척기, 식기보관함 등 사용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7일부터 7월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장례식장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청소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062-960-8477)에 문의하면 된다.

임행택 기자

군공항 정면돌파...김영록 전남지사, 천막 농성장 전격방문 '호소'

"진정성 갖고 이전 추진...지원방안도 강구"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26일 오전 도청 앞 입구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농성장을 방문해 집행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 달 넘게 도청 앞 입구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천막을 전격 방문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천막농성장을 찾아 약 20여분간 머물며 대책위 송남수 회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쟁점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천막농성장 방문은 처음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대책위 측은 김 지사에게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장 방문을 수행한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지사가 진정성을 갖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이기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신호탄?...2026년 전남에 40MW급 완성

장성군에 오는 2026년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남도청과 한국전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 장성군과 함께 '첨단 데이터센터 with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구축을 위한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은 전남 장성군 남면 첨단 3지구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40MW 규모로 지어진다. 이번 투자협정은 49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남도청과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전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수요에 공급량을 맞추는 것은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이다. 이런 폭염과 태양광 변동성 등 도전적인 여건에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아카데미는 26일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6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기후 비상사태, 지방정부 '에너지 제로도시' 정책 수립을"

지스트 아카데미 포럼 기후 비상사태속 지방정부는 '에너지 제로 도시'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아카데미는 26일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6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1980년대에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됐고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임을 알리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열 이사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없

다면 한국경제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는 15분 거리 안에 생활권이 조성된 '15분 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건물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제로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과 사회책임, 거버넌스를 지키는 기업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시민사회는 기후 비상 시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유엔 환경 계획이 제안한 기후-환경 실천 10개 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GIST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 아카데미(2010년 개원)와 기후변화아카데미(2016년 개원)를 운영하고 있다. 서선욱 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Pens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1배	1.7배	2.1배
3분위	2.1배	2.7배	5.3배
2분위			
1분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